

제주 오름의 올바른 이해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오 창 명

1. 서론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건강과 섭생(攝生)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건강을 챙기는 운동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의 주변을 보면, 축구나 탁구, 골프나 테니스, 볼링 등 공이나 라켓, 채 따위를 이용한 구기(球技)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많고, 오름을 오르거나 올렛길을 걸거나, 한라산 둘레길을 걸거나 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작은 회사나 학교 등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적게는 네댓 명, 많게는 10여 명에서 20여 명이 함께 무리를 지어 오름을 오르는 경우가 많다. 아예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정기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오름을 오르면서도 정작 오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듯하다. 더욱이 오름에 대해서 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된 정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해서, 엉뚱한 정보나 거짓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제주도 오름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문화 탐방에서는 제주도 오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오름인가, 오름인가?

현대 제주도 지도나 지형도에는 모두 ‘○○오름’이나 ‘○오름’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오름’이 본디 제주방언인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1950년대 또는 1960년대만 해도 ‘○○오름’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요즘도 고로들의 말에서는 ‘○○오름’이라 부르는 것을 쉬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오름’이라 하는지 ‘오름’이라 하는지 구별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름’ 하나로 인식해서 ‘오름’으로 쓰는 바람에 마치 ‘오름’이 본디 제주방언인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50년대 제주 방언을 조사하여 수집하고 사전으로 발간했던 현평호 선생은 『제주도 방언 연구: 자료편』(1961)에서 분명히 ‘오름’으로 기록하고 로마자로 ‘orom’으로 기록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1970년대에 제주 민요를 채록하여 책으로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발표했던 김영돈 선생의 글에서도 ‘○○오름’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대에 제주 방언을 수집하여 사전으로 냈던 석주명 선생도 『제주 방언 연구』(1960)에서도 ‘오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의 개정판인 『제주 방언 연구』(1988)에는 ‘오름’이라 쓰고, 로마자로 ‘olom’으로 표기되어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와 토산리 경계에 있는 ‘가시오름’ 전경

조선 후기 척화(斥和)의 상징이었던 김상헌(金尙憲)이 1601년에 제주 안무어사(按撫御史)로 제주에 왔다가 남긴 기록인 『남사록(南槎錄)』(1601~1602)에 제주도 ‘오름’을 한자 차용 표기로 나타냈다. 이 책을 보면 『지지(地誌)』를 인용하여, 한라산(漢拏山)은 頭無岳(두무악)이라고도 하고, 豆毛岳(두모악)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지지(地誌)』를 인용하여 岳(악)을 ㅍㅎㄹㅎ(오로음)이라 한다고 했다. 이 『지지(地誌)』는 어느 책을 일컫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제주에 있었거나 제주목의 지지를 정리한 『지지(地誌)』라는 책에 한자로 쓰인 岳(악)을 ㅍㅎㄹㅎ(오로음)으로 썼다는 것이다. 곧 한자 표기 岳(악)은 한자 차용 표기 ㅍㅎㄹㅎ(오로음)으로 썼다. ㅍㅎㄹㅎ(오로음)은 제주 방언 ‘오름’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 방언 ‘오름’이라는 말은 적어도 14,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5,6백여 년 동안 써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돈 선생의 『제주도 민요 연구: 상』(일조각, 1965)을 보면, 782번, 783번 민요로 다음과 같은 ‘맷돌·방아 노래’가 들어있다.

782
 가시오름 강 당장 칩의
 승시 들언 망ㅎ젠 ㅎ난
 짓만 부뜬 도폭을 입곡
 펜지만 부뜬 망건을 씨곡
 망만 부뜬 갓을 씨곡
 목만 부뜬 보선을 신곡
 들맹이만 부뜬 신을 신곡
 〈翰林 A〉

783
 가시오름 강 당장 칩의
 승시 제와 들이젠 ㅎ난
 매인 췌가 올 넘엄서라
 앓진 솟이 걸음을 건곡
 튼은 독이 고기약 ㅎ난
 기시린 듯이 돌음을 돌곡
 벳긴 개가 공공공 ㅎ고
 새 움이 난다
 (제주시 삼양동 여, 72, 朴春仙)

이들 민요의 첫 구절에 나타나는 ‘가시오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남쪽(토산리와 세화리 경계)에 있는 오름을 이르는데, 오늘날 지도와 지형도에는 ‘가세오름’ 또는 ‘가시오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4~50년 전에 제주 민요를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가시’라 하던 것이 지도나 지형도에는 ‘가세’나 ‘가사’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오름’이 ‘오름’으로 바뀌어 있다.

3. 뫼와 산(山), 봉(峰), 악(岳)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주에 있는 오름은 사람에 따라, 또는 지도나 지형도에 따라, 그리고 조사자나 피조사자에 따라 ‘○○오름’ 또는 ‘○○오름’, ‘○○岳(○○악)’, ‘○○뫼’ 또는 ‘○○미’, ‘○○山(○○산)’, ‘○○峰(○○봉)·○○峯(○○봉)’ 등으로 말해지거나 표기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山(○○산)’으로 부르는 오름은 몇 개이고, 그것은 일반적 인 오름보다 더 가파르고 험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의 오름 이름에서는 ‘오름’이나 ‘뫼·미’ 또는 岳(악)이나 峰(봉)으로 부르는 오름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다.

우선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와 안덕면 사계리 경계에 오름이 하나 있다. 그 오름이 오늘날 지도나 지형도에는 ‘단산’이나 簾山(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 지형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簾山(단산)’이나 ‘단산’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름을 ‘산’으로 일컫는 오름의 개수를 헤아릴 때 반드시 포함시키고 험하고 거친 산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인성리 경계에 있는 ‘바굼지오름’ 전경(앞, 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이 오름의 본디 이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먼저 이 오름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어떻게 표기되었는가를 살펴보자.

고문헌

- 把古山(파고산) :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 9월 갑신(28일)’,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 10월 임진(7일)’,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대정현, 산천’
 <참고> 把古泉(파고천) : 『남사록』
 石泉(석천) : 이원진의 『탐라지』(1653) ‘대정현, 산천’
 破古未岳(파고미악) : 정온의 『동계집』 권2 「大靜縣東門內圍籬記【萬曆甲寅秋八月日】」
 簞山(단산) : 이원진의 『탐라지』(1653) ‘대정현, 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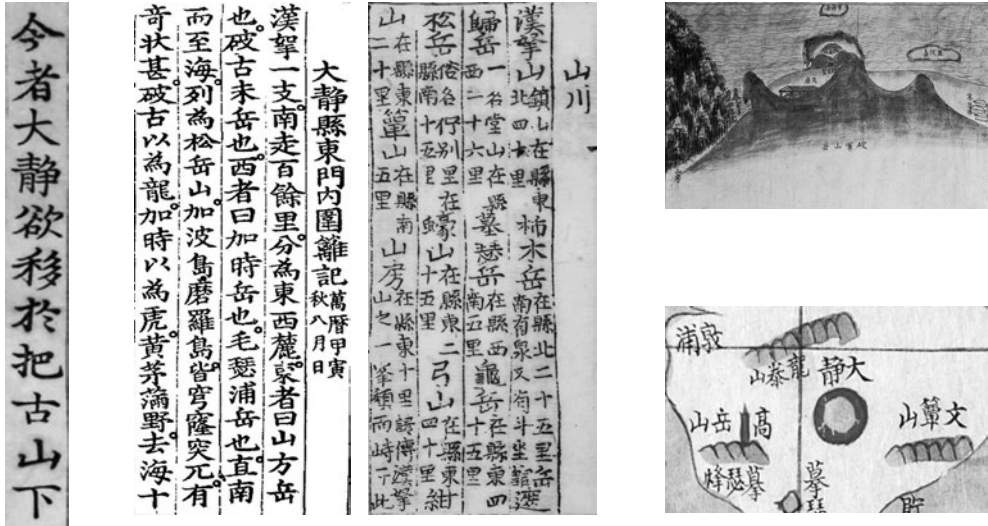
고지도

- 簞山(단산) : 「탐라도」(17세기 말), 「탐라지도」(1709)
 破軍山(파군산)·破軍山岳(파군산악) : 『탐라순력도』(1702)
 文簞山(문단산) : 『해동여지도』(18세기 후반)의 「제주 대정 정의(濟州·大靜·旌義)」
 簞山·タンサン :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조선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 9월 갑신(28일) 조와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 10월 임진(7일) 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대정현, 산천’ 조 등에서 확인되는 把古山(파고산)은 지금 바로 簞山(단산)에 대응하는 오름 이름이다. 把古山(파고산)은 ‘바고미’ 또는 ‘바고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 오름 아래쪽(남쪽)에 ‘세미·세미물’이 있다. ‘세미’는 ‘심(泉)·샘’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으로, ‘세미’라고만 해도 되는데 제주방언에서는 ‘물’이 덧붙어서 ‘세미물’이라고도 한다. 이 ‘세미’ 앞을 지나는 고개를 ‘세미고개’ 또는 ‘세미물고개’라 한다. 이 ‘세미’를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把古泉(파고천)으로 표기했다. 把古泉(파고천)은 ‘바고밋세미’ 또는 ‘바고밋물’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원진 『탐라지』(1653)부터는 把古泉(파고천)이 石泉(석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石泉(석천)은 ‘돌세미’의 한자 차용 표기라 할 수 있다. 골에서 솟아나는 세미라는 데서 붙인 것인 듯하다.

동계 정온(鄭蘊 : 1569~1641)은 1613년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죽임을 당하자, 봉사(封事)를 올려 영창대군을 죽인 정항(鄭沆)의 목을 베고 영창대군의 위호(位號)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인성리 경계에 있는 '바굼지오름'의 한자 표기 (왼쪽부터 『중증실록』, 『동계집』, 이원진의 『탐라지』, 『탐라순력도』, 『해동여지도』)

를 추복(追復)하라고 주장했다가, 광해군의 친국(親鞫)을 받고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때 「大靜縣東門內圍籬記【萬曆甲寅秋八月日】」를 썼는데, 이 글이 그의 저서 『동계집』 권2에 실려 전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 “漢挈一支 南走百餘里 分爲東西麓 東者曰山方岳也 破古未岳也 西者曰加時岳也 毛瑟浦岳也 直南而至海 列爲松岳山 加波島 磨羅島 皆穹窿突兀 有奇狀甚 破古以爲龍 加時以爲虎”라고 기록했다. 이 기록에서 破古未岳(파고미악)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오름이 오늘날 簞山(단산)을 이른다. 破古未岳(파고미악)은 ‘바고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로, 앞의 把古山(파고산)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이때가 만력 갑인년(1614) 가을 8월이다. 그러니까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바고미오름’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 破古未岳(파고미악)이다.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원진(李元鎭 : 1594~1665)이 제주목사로 부임한 뒤에 제주도를 답사하고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서 『탐라지(耽羅志)』라는 책을 남겼다. 이 책에는 簞山(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대정현, 산천’ 조에서 오름 이름으로 簞山(단산)을 언급하고, 샘 이름 石泉(석천)을 언급하면서 簞山(단산) 아래에 있다고 했다. 또한 ‘대정현, 학교’ 조에서 ‘향교(鄕校)’를 언급하면서, 예전에 북성 안쪽에 있

던 향교가 동성 밖으로 옮겼다가, 서성 안쪽으로 옮기고 다시 성 남쪽의 簞山(단산) 아래쪽으로 옮겼다고 했다. 과문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 기록들이 簞山(단산)으로 표기한 최초의 기록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시대의 한자 학습서를 보면, 簞(단)의 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簞 바고니 단 <훈몽-초, 중:6>
 바곤이(簞) <소해 4:47>
 簞 동고리 단 <자류 하:5>
 簞 小簞 箒也 소코리 단 <신자전 3:28>

그러니까 簞의 훈은 ‘바고니’바곤이’를 거쳐서 현대의 ‘바고니’에 이르고, 비슷한 훈으로 ‘동고리’나 ‘소코리’(소쿠리의 옛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 ‘바구니’(簞)에 대응하는 제주 방언은 ‘바구리’나 ‘바굼지’로 실현되고 있다.

인성리와 사계리 경계에 있는 오름은 지금도 ‘바굼지오름’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簞山(단산)은 지금도 고로들에게서 ‘바굼지오름’이나 ‘바굼지오름’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 표기 簞山(단산)은 바로 ‘바굼지오름’이나 ‘바굼지오름’을 한자 차용 표기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50여 년 뒤에 『탐라순력도』(1703)에 들어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형상(李衡祥)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순력(巡歷)할 때 화가 김남길을 대동하여 여러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 가운데 「대정조점(大靜操點)」(1702)과 「대정양로(大靜養老)」(1702)에는 破軍山(파군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대정강사(大靜講射)」(1702)에는 破軍山岳(파군산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破軍山岳(파군산악)이 제대로 표기한 것이고, 破軍山(파군산)은 破軍山岳(파군산악)에서 岳(악)을 생략해서 표기한 것이다. 破軍山(파군산)은 ‘바군미’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破軍山岳(파군산악)은 ‘바군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바군미’는 ‘바고미’의 변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에 이형상이 순력할 때도 ‘바군미’ 정도의 음성형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09년에 만든 「탐라지도병서」의 「탐라지도」에 簞山(단산)으로 표기되고,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簞山(단산)으로 표기된 뒤에는 거의 簞山(단산)으로 표기되었다. 그 가운데 특이한 것 하나가 바로 18세기 말의 『해동여지도』에 들어있는 「제주 대정 정의(濟州大靜旌義)」 지도에 보이는 文簞山(문단산)이다. 文

簞山(문단산)은 簞山(단산)에 이어지는 표기인데, 앞 부분에 文(문)이 덧붙여 있다. 文(문)은 현대국어 ‘미다’의 옛말 ‘뵈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이 덧붙은 ‘뵈-민’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文簞山(문단산)은 ‘뵈바굼지오름’민바굼지오름’ 또는 ‘뵈바고니오름’민바고니오름’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다. ‘뵈다’미다’는 바로 禿(독)에 대응하는 말이다. 禿 뵈 독 俗呼禿 靡 머리 뵈 늬 <훈몽-초, 상:15>. 그러니까 돌산으로 이루어진 바굼지오름을 일컫는 말이 바로 ‘뵈바굼지오름’민바굼지오름’인 것이다. 오늘날은 2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돌산 주변에 여러 나무들이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로 山(산)이라 표기했다고 해서 산이고, 岳(악)이라 표기했다고 해서 오름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오름과 오름, 산과 메·미, 그리고 岳(악)과 峰(봉)·峯(봉)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산이라 부르는 오름은 몇 개이고, 오름이라 부르는 오름은 몇 개이고, 岳(악)이라 부르는 오름은 몇 개라 헤아리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억지 해석을 해서 제주도 오름 이름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한다.

4. 본디 오름 이름은 무엇인가?

제주시 애월읍 산 41번지 임야 안에 두 개의 오름이 동서로 이어져 있다. 이 두 개의 오름 이름을 제대로 등재하거나 기록한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독물오름(왼쪽)과 퀘미오름(오른쪽) : 폭낭오름에서 본 전경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동쪽 오름에다 ‘貓岳·クニオルム’이라 표기했다. 한자로는 猫岳(묘약)이라 썼지만 제주 방언으로는 ‘케오름’이라 한다는 것이다. ‘케오름’은 ‘괴오름’으로 써서 1950년대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2만 5천 분의 1 국가 지형도에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1대 5천 지형도에는 2005년까지 서쪽 오름에 ‘괴오름’으로 표기하고, 동쪽 오름에 ‘동물오름’으로 표기해왔다. 그러니까 국가 지형도에 서조차 이들 오름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 지금도 국토포털(<http://www.land.go.kr>)에서 ‘동물오름’과 ‘괴오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5천 분의 1 지도의 내용과 같다.

동물오름 (651m)

지명 유래 : 오름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예로부터 동물약, 동물오름으로 불림.

괴오름

지명 유래 : 산봉우리형이 괴와 같다 하여 괴약이라 함.

그런데 제주도에서 오름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다.

괴오름

……. 지형이 마치 괴(고양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괴오름(猫岳) 또는 괴미(--오름)라고 불리며 이것은 고양이 등처럼 구부러진 등성과와 아울러서의 일컬음이다.……. 한쪽의 옆으로 뚫린 암벽은 마치 커다란 북이 비스듬히 돌아진(걸려 있는) 모양 같대서 이 오름에 ‘북돌아진오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오름나그네(김종철, 1995:권2, 184-186)

괴오름(괴미오름, 동물오름, 猫岳)

서부산업도로변 북돌아진오름과 서로 이웃한 오름으로 고양이등처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 괴오름이라 부르고 있으며,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지형도(1/5,000) 상에는 이 오름이 동물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다.

북돌아진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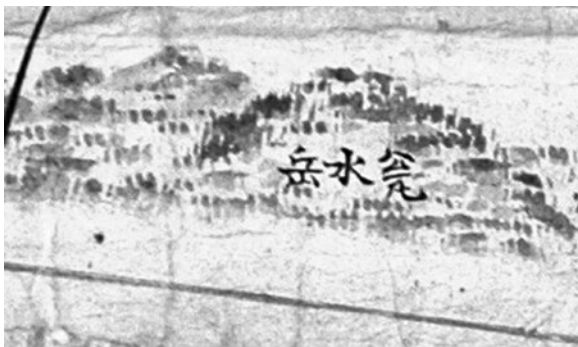
산정부 언저리의 암벽이 마치 커다란 북이 걸려 있는(돌아진) 모양 같다고 해서 괴오름과 분리하여 북돌아진오름이라 불리고 있다.

이상 『제주의 오름(제주도, 1997: 242-243)

앞의 책은 제주의 오름을 비교적 찬찬하게 조사하여 기록한 것인데도, 이 두 오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여 밝히지 못했다. 다만 ‘복돌아진오름’이라는 별칭을 찾아낸 것이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의 책은 앞의 책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제주 방언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대 5천 지형도의 잘못된 표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필자가 이 두 오름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고, 현지인 조사를 통해 텔레비전(제주MBC)을 통해 본디 이름을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필자가 쓴 책에서는 두 개 오름 이름을 모두 밝혔다. 여기서 다시 밝히자면, 동쪽에 있는 오름의 본디 이름은 ‘독물오름’이고, 이것이 실제 소리(발음)에서는 ‘동물오름’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오름은 ‘퀘물오름’이라 하다가, 2,300여 년 전에 ‘퀘미오름’이라 하고, 100여 년 전에는 ‘퀘미오름’을 ‘퀘오름’이라 하면서 엉뚱한 이름이 정착하게 되었다. ‘독물오름’은 ‘복돌아진오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독물오름’은 고지도와 고비석에 瓮水岳(옹수악)으로 표기되어 있고, ‘퀘미오름’은 고지도는 물론 고비석에 高美岳(고미악)으로 표기되어 있다. 瓮水岳(옹수악)은 ‘독물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高美岳(고미악)은 ‘퀘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의 瓮水岳(옹수악)과 오름 주변 고비(古碑)의 高美岳(고미악)

결국 위에 제시한 세 개(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오름나그네』 자료, 『제주의 오름』 자료)의 자료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제주도 지명에

오류가 많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지명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명을 심의하였다. 결국 잘못된 정보가 고시되어서 2005년 이후에 재작성된 국가 지형도(1대 5천 지형도와 1대 2만5천 지형도)를 보면, 동쪽 오름을 ‘웨이오름’이라 하고, 서쪽 오름을 ‘동물오름’이라 잘못 기록해 버렸다. 그러니 국가 지형도도 믿지 못하게 되고, 제주도에서 만든 오름 정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5. 마무리

제주도 오름 이름은 적어도 1,000여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붙여서 연면하게 불려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들어서 한자 또는 한자 차용 표기로 나타내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한자음으로 읽어버리거나 오늘날 한자의 훈으로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말하거나 엉뚱하게 해석하여 설명하는 풍조가 일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본디 이름과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이름과 엉뚱한 뜻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도 오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디 이름이 무엇인가부터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한 것은 지질학을 공부하거나 식물학을 공부하거나 한 사람들이 해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반성하고 되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형의 문화재들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본디 제주 오름 이름을 제대로 살려 써야 하고, 제대로 불려 줘야 하고, 제대로 기록할 때 제주 문화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